

# 전기차 시장 '브레이크' ... 생존경쟁은 '가속 페달'

### 테슬라, 올해 성장 둔화 경고... 일부 생산량·인력 감축 현대차·기아 '가성비' 좋은 모델로 세계시장 확대 박차

그동안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며 '장밋빛 미래'를 그렸던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올해 들어서는 가라앉은 수요와 과열된 경쟁에 부딪혀 암울한 전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전기차에 있어 중요한 한 해가 험난한 출발을 했다"며 이 같은 상황을 보도했다.

올해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업체는 테슬라다.

테슬라는 지난 24일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이 작년보다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테슬라는 이를 저려한 신차 개발·생산에 따른 불가피한 과정으로 설명했지만,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신차 생산량을 늘리는 과정 역시도 전적인 것이라고 전망해 시장의 불안감을 키웠다.

이에 더해 스웨덴의 전기차 업체인 폴스타 역시 지난 26일 "어려운 시장 여건"과 내년 판매량 감소 전망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인력의 15%를 감원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포드자동차는 수요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 픽업트럭 'F-150 라이트닝'의 생산량을 줄이기로 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또 미국의 대형 렌터카 업체인 허츠는 지난 11일 자사가 보유한 전기

차의 약 3분의 1을 매각하고 내연기관 차량으로 교체한다고 선언했다.

시장조사업체 JD파워의 전기차 애널리스트인 엘리자베스 크레이는 올해 첫 3주 동안 자동차 소매시장에서 전기차 점유율 확대 속도가 느려졌다면 이는 미 연방 정부의 배터리 관련 규제로 인해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모델이 올해부터 줄어들 것 등 일부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시장 딜러들도 올해 전기차 판매에 관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난 25일 미국의 약 5000개 자동차 매장을 대표하는 딜러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기차 전환 정책을 서두르지 말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전기차 재고가 쌓여가고 충전 인프라가 여전히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전기차의 미래에 대한 대통령의 신념을 공유하지만, 우리는 도

로가 준비되기 전에 그 미래를 향해 가속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청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세인트루이스 지역의 딜러 브래드 소위스는 "전기차에 관해" 여전히 말들은 많지만, 아이들을 하키장에 데려다주기 위한 대형 SUV로 기아의 텔루라이드나 쉐보레의 타호를(전기차로) 교체할 준비가 된 사람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차에 기꺼이 프리미엄을 지불하던 열정적인 전기차 구매자들은 사라졌다"며 "이제는 충전 시간과 배터리 수명, 주행거리 등에 관심을 갖는 간단한 고객들만 남아 있다고 전했다.

반면 전기차 공급 측면에서는 테슬라 외에도 중국 전기차 업체들과 현대차·기아가 저렴한 전기차를 내놓으면서 시장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졌다고 WSJ은 지적했다.

중국 비야디(BYD)는 지난해 4분기 테슬라를 제치고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1위에 올랐으며, 최

근 판매 시장을 유럽 등으로 크게 확대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는 '가성비' 높은 전기차 라인업을 앞세워 지난해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를 제치고 미국 내 전기차 판매 2위로 올라섰다.

시장조사업체 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미국에서 50개 이상의 전기차 모델이 판매되고 있으며, 올해는 그 수가 약 2배 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전기차 성장에 긍정적인 전망을 견지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JD파워는 올해 미국 내 전기차 점유율이 전체 소매 자동차 시장의 12.4%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자동차 업계 임원들도 올해 전기차 가격이 하락하고 소비자 선택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다시 회복할 것으로 낙관했다.

/연합뉴스

## 새로워진 벤츠 '더 뉴 E-클래스' 만나요

### 광주·수완전시장 3·4일 런칭 행사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가 더 뉴 E-클래스 첫 출고와 함께 본격 판매에 나선다.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는 지난 25일 사전예약 고객의 11세대 신형 벤츠 E-클래스를 첫 출고하고 런칭기념 특별 행사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9일 공식 런칭한 코드네임 W214, 신형 벤츠 E클래스는 국내 시장에 8년만에 출시되는 풀체인지 모델이다.

신성자동차는 지난 25일 사전 예약 고객의 차량을 첫 출고했으며, 첫 출고 고객에게 신성자동차 보증연장 프로그램 (2년 10만km) 상품을 제공했다.

11세대 벤츠 E-클래스는 광주전시장과 수완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다.

신성자동차는 11세대 벤츠 E-클래스 런칭을 기념해 오는 2월 3일(광주전시장), 4일(수완전시장) 특별한 런칭 행사를 마련했다.

당일 해당 전시장을 방문하면, 차량 PT와 사은품 북권이벤트, 타로카드와 캐리커처, 캘리그래피 등을 제공하는 엔터테인먼트 행사를 제공한다.

또 행사 당일 전시장에 찾은 고객을 대상으로 시승 예약 신청을 받는다. 행사장에서 시승예약을 신청하면, 행사 이후 개별 연락을 통해 날짜와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신성자동차는 신형 벤츠 E-클래스 출고 기념으로, 광주·수완전시장을 찾아 출고하는 고객에게 신성자동차 보증연장 프로그램 (2년 10만km) 상품을 제공한다.



벤츠 광주전시장에 전시된 벤츠 '더 뉴 E-클래스'. <신성자동차 제공>

이번 더 뉴 E-클래스는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잇는 외관 디자인과 전동화 기술 적용을 통해 향상된 주행 성능과 최첨단 안전 및 편의사양을 자랑한다.

더 뉴 E-클래스는 국내에 총 7개의 라인업으로 선보여진다. 가장 먼저 E 300 4MATIC 익스클루시브, E 300 4MATIC AMG 라인이 이달 먼저 인 도되며, 1분기 중 E 220 d 4MATIC 익스클루시브가 인도될 예정이다. 이후 E 200 아방가르드, E

450 4MATIC 익스클루시브, E 350 e 4MATIC 익스클루시브, 메르세데스-AMG E 53 하이브리드 4MATIC+가 출시될 계획이다.

더 뉴 E-클래스의 국내 출시 라인업과 가격 및 제원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64개 공식 전시장 및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현대차, 2024 월드랠리챔피언십 '출발 좋다' ... 1R 1위

### 서비스 스킬 콘테스트 열려

현대자동차는 지난 27일 경기도 평택의 현대 트레이닝 센터에서 '제5회 현대 모터사이클 서비스 스킬 콘테스트'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현대 모터사이클 서비스 스킬 콘테스트는 총 3차례에 걸쳐 이론과 실기 항목으로 나눠 진행됐다. 모터사이클 구조와 작동원리에 대한 지식을 테스트하는 1차 이론 평가와 각 딜러사 대표 테크니션 1인이 참가해 점검 능력 등을 평가하는 실기평가로 구성됐다.

이번 스킬 콘테스트는 6개 딜러사 12명 테크니션이 참여했으며,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마련됐다.

본 대회의 대형 모델 부문 최우수상은 현대

모터사이클 대구 소속 민정기 테크니션, 우수상은 현대 모터사이클 강남 소속 양민철 테크니션, 장려상은 현대 모터사이클 강북 소속 주형석 테크니션이 수상했다.

소형 모델 부문 최우수상은 현대 모터사이클 강북 소속 구민준 테크니션, 우수상은 현대 모터사이클 대구 소속 김현우 테크니션, 장려상은 현대 모터사이클 광주 소속 강영모 테크니션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지홍 현대코리아 대표이사는 "모터사이클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현대코리아 및 딜러 임직원 모두가 오랜 기간 노력해 온 만큼, 보다 경쟁력 있는 서비스로 압도적인 고객 만족을 선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2024 WRC 몬테카를로 랠리에서 1위를 달성한 현대팀 관계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현대차 제공>

## 설 연휴 전 차량 무상점검 받으세요

### 완성차 업체, 내달 6~8일...31일~내달 2일 쿠폰 다운

설 연휴를 앞두고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현대차(제네시스 포함)와 기아는 다음 달 6~8일 전국 서비스 거점에서 '설 특별 무상점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항목은 오일류, 공조 장치, 타이어 마모도·공기압, 브레이크, 각종 등화장치 점등 상태 등이며, 워셔액도 보충받을 수 있다. 전기차의 경우 EV 냉각수와 고전압 배터리를 추가 점검받는 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각 사 고객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인마이현대·마이기아·마이제네시스에서 무상점검 쿠폰을 다운받아 블루렌즈나 직영 서비스 센터, 오토류에 제시하면 된다.

무상점검 서비스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나 고객 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국GM은 9개 직영 서비스센터와 388개 협력 서비스센터, 르노코리아는 7개 직영 서비스센터와 387개 협력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점검 서비스를 한다. KGM 고객은 2개 직영 서비스센터와 315개 협력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설 연휴 장거리 운행에 앞서 차량 주요 부품과 기능을 점검해 각종 사고를 방지하고 탑승자의 안전한 귀성길을 돕고자 마련됐다.

각 완성차 업체는 자동차 운행 중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에 대비한 긴급 출동반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현대차, 2024 월드랠리챔피언십 '출발 좋다' ... 1R 1위

현대자동차가 2024 월드랠리챔피언십(WRC) 첫번째 라운드에서 1위를 차지했다.

현대차는 지난 25일(현지시간)부터 28일 진행된 WRC 첫번째 라운드 '몬테카를로 랠리'에서 티에리 누빌이 1위를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현대 월드랠리팀은 이번 경기에 티에리 누빌과 오토 타나, 안드레아스 미켈센 등 3명의 선수가 'i20 N Rally1' 경주차로 출전했다.

현대팀은 WRC 매년 첫 경기로 열리는 몬테카를로 랠리에서 2020년 티에리 누빌 선수의 우승 이후 두번째 우승을 달성했다. 몬테카를로 랠리는 변화

가 많은 기후 속에 눈길, 빙판길과 아스팔트 노면이 반복되는 악명 높은 코스로 다양한 환경 조건에 최적화된 운영 전략을 유연하게 구사하는 것이 승패의 핵심으로 작용하는 곳이다.

티에리 누빌은 다양한 코스에서의 풍부한 주행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 중반부터 1위를 유지하며 우승을 달성했다. 특히, 누빌은 이번 우승을 통해 개인 통산 WRC 20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누빌의 우승과 더불어 오토 타나 선수와 안드레아스 미켈센 선수도 4위, 6위의 준수한 성적을 달성했다.

WRC는 국제자동차연맹 FIA가 주관하는 세계 최정상급 모터스포츠 대회로, 포장도로에서부터 비포장도로, 눈길까지 각각각색의 환경에서 펼쳐지는 연간 경기결과를 토대로 제조사 및 드라이버 부문 챔피언이 결정된다.

현대차는 i20 N의 1.6리터 4기통 엔진에 100kW 급 전동모터를 탑재한 'i20 N Rally1' 하이브리드 경주차로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2024 WRC는 총 13라운드로 구성되며, 오는 2월 15일부터 스웨덴 랠리가 열린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르노코리아, 스타필드 수원에 새 전시장... 첫 복합쇼핑몰 입점

르노코리아자동차는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 들어선 대형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수원'에 새 전시장 '르노코리아 스타필드 수원점'을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복합 쇼핑몰에 입점한 첫 르노코리아 전시장이다.

르노코리아는 올해 하반기 하이브리드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신차 출시 준비와 함께

이 전시장을 통해 브랜드 강화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스타필드 수원점에는 르노 브랜드의 새 글로벌 매장 정체성(SI) 콘셉트 'rml'가 국내에서 처음 적용됐다.

'스물 앤 펜스'라는 공간 테마 아래 도심 지역 고객들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상담과 계약, 출고 및 시승을 모두 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